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군악조직의 교육적 기능*

김 희 진

1. 음악교육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군악
2.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군악교육 조직
3. 음악 전문인 교육을 지향한 군악학교 교육
4. 국가, 전쟁, 군, 그리고 관악교육의 성장과 그 외연의 확장
5. 요약과 맺음말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과제번호 NRF-2011-322-G00005).

개 요

이 논문은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군악조직에 대한 연구로, 당시 군악조직을 통한 음악활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단위군악대에서 이루어진 음악훈련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이 설립한 군악학교의 교육목적, 규모, 교육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이 논문은 군악조직이 당시 규모가 가장 큰 관악교육기관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이 연구는 군악조직을 통한 당시 관악교육의 특성을 다음과 같은 당시의 군사적 특성과 군악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밝힌다. 우선, 전쟁 중에 강화된 국가 공권력이 관악교육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다. 둘째, 군조직의 규율 속에서 집중적 음악훈련이 강도 높게 이루어졌다. 셋째, 군악대원들은 군부대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음악공동체를 형성했고, 정규교육과정이나 공식연습을 통한 교육은 음악공동체의 음악적 상호작용과 결합하여 그 효과가 확대되었다. 넷째, 레퍼토리 확충이 필요했던 당시의 군악대는 일부 대원들에게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과 편곡에 관심을 갖고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다섯째,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활용하는 군악의 원리에 기초하여 군악대원들은 다양한 유형의 음악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 본 연구는 군사를 넘어서는 군악의 함의를 이해하는 한 방식을 제시하며, 집중적 조명을 받지 못했던 당시의 군악조직 내부 교육활동의 세부사항을 드러냄으로써 한국관악교육사의 가려졌던 한 장을 밝히는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군악, 군악대, 군악학교, 음악교육, 6·25 전쟁

1. 음악교육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군악¹⁾

대한민국 군악조직은 음악조직으로서의 규모와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음악학자들의 관심의 주변에 머물러 왔다. 20세기 초에 존재했던 대한제국 군악대에 대한 연구가 장사훈의 선구적 연구에서 학자들의 최근의 연구 성과로 이어지며 축적되어 가고 있는 것에 비교해 볼 때,²⁾ 20세기 중반에 형성되기 시작한 대한민국 군악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연구의 진전은 저조한 상태였다. 대한민국 군악대에 대한 설명은, 총람 종류의 출판물에 나타나는 간결한 요약이나 한국음악사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에 포함된 간략한 언급에서 찾을 수 있고,³⁾ 석사 학위 논문에서 다루어진 경우나, 군이 발행한 출판물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⁴⁾ 음악학적 시각에서 대한민국 군악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최근에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⁵⁾ 특히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군악

-
- 1) 이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군악에 대한 도움 말씀을 주신 전 군악대장·군악대원님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신 군악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필자는 이 논문의 골격을 이루는 내용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와 한국음악학회가 공동 주최한 2013년 봄 정기학술대회에서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대한민국 군악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 2) 예를 들면, 남궁요열, 『개화기 한국음악: 프란츠 에케르트를 중심으로』 (세광음악출판사, 1987); 노동은, “한국관악의 역사: 근대관악사를 중심으로.” 『예술문화』 4 (2001), 27-98; 송방송, “대한제국 시절 군악대의 공연양상: 최초 양악대의 공연종목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35 (2005), 99-115; 이숙희, “대한제국 악제의 성립 배경과 성격.” 『서울학 연구』 35 (2009), 59-110; 이정희, “대한제국기 군악대 고찰.” 『한국음악연구』 44 (2008), 165-194;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 (보진재, 1974).
 - 3) 예를 들면, 남궁요열, “관악,” 『한국음악총람: 총론편』 (한국음악협회 편집, 한국음악협회, 1991), 362-395;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양악100년』 (현암사, 2001).
 - 4) 예를 들면,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군악사』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08); 대한민국 해군, 『반세기를 넘어서: 해군정훈50년사』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1999); 육군본부, 『육군군악사』 (육군본부, 1980).
 - 5) 김호석, “국방부 국악대의 창설과 실태,” 『한국음악사학보』 29 (2002), 217-246; 황

대의 형성기와 6·25 전쟁기의 군악대에 대한 논의는 국방부와 육해공군이 제작한 출판물에 군사적 시각에서 군조직사의 일부로 소개된 내용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드물었다.⁶⁾ 본 연구는 군음악의 영역을 군사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음악문화의 일부로서 조명하면서, 대한민국 군악대의 형성기와 한국전쟁기, 대체적으로 말해서 1940년대 후반기와 1950년대 전반기에 군악조직이 수행한 역할의 일부를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군악조직이 20세기 중반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음악교육기관으로서 수행한 역할의 특성과 중요성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기존 저술에서 이루어진 육군군악학교, 해군군악학교, 그리고 군악대에 대한 언급을 출발점으로 삼고, 일차자료의 수집과 원로 군악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삼는다. 일차자료로는 군악대 방문을 통해 수집한 악보와 군악학교 관련 기록을 참고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나 지금까지 발견한 일차자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당시 군악조직의 교육적 기능을 밝히기 위하여 당시 대한민국 군악대에 종사하였던 음악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또한 참고한다. 다수의 원로 군악인들과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부분을 정리하는 방식과, 특정 개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문으로 가져오는 형식으로 인터뷰 내용을 참고한다. 인용문의 경우, 그 초점이 개인의 음악적 성취나 개인사에 있지 않고 당시 군음악조직과 그 교육

인근, “국군취타대의 기능과 활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1).

6) Heejin Kim, “Military Band Musicians on the Border: Crossing over Musical Genres in the Transnational Space of the Korean War,” Ph.D. dis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12). 이 논문에서 필자는 대한민국 군악대를 중심으로 6·25 전쟁기 음악을 논의하면서 대한민국 군악조직이 수행한 음악 문화적 기능의 일부로 교육적 기능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필자가 군악조직의 교육적 기능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보충 연구로 논의를 확대하고 새로운 틀로 구성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내용에 대한 조직 성원으로서의 관찰과 경험에 초점을 두며, 인터뷰 내용 중 다섯 분의 인터뷰만을 선택하여 그 일부를 성원 A, B, C, D, E의 언급으로 인용한다. 해군군악학교에서 공부하고 해군군악조직에 다년간 몸담았던 작곡가 김정길이 자신의 음악세계를 직접 서술한 글, “나의 음악을 말한다”에서 해군군악학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부분 또한 이 글에 나타나는 인용문의 출처이다.⁷⁾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군 조직의 일부로 존재했던 육군군악학교와 해군군악학교가 설정했던 교육목표가 군악의 범위를 넘어 한국의 음악문화를 이끌어 갈 음악전문인을 육성하는 데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견지에서 두 군악학교가 제공했던 커리큘럼과 교육활동을 소개한다. 또한, 일반 군악대가 단위 별로 진행한 군악대원들의 훈련과정도 군악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연관시켜 간단히 소개한다. 그리고 군악조직을 통해 이루어진 음악교육을 당시 대학교에서의 관악교육과 비교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관악교육이 아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던 20세기 중반에 군악학교의 교육 활동과 군악대의 훈련과정이 한국음악 교육사에서 차지했던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더 나아가서, 군악조직의 교육적 기능 수행에 영향을 끼쳤던 요인으로 전쟁기 국가 공권력의 확대, 군조직의 엄격한 규율, 군악부대 내 음악공동체의 형성, 20세기 중반 대한민국군악대의 레퍼토리 확충 필요성, 그리고 기능음악으로서의 군음악의 다양성 등을 주목하고, 이에 연관시켜 군악조직이 수행한 교육적 기능의 특수성을 검토한다.

7) 김정길, “나의 음악을 말한다,” 『낭만음악』 9 (1990), 7-56.

2.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군악교육 조직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군악대를 음악교육의 측면에서 연구하기 위한 검토의 주요 대상은 개별 군악대에서 실시한 음악교육과, 육군과 해군이 운영한 군악학교에서의 교육으로 대별된다. 해방 이후 조선경비대(이전 명칭, 남조선국방경비대)와 조선해양경비대(이전 명칭, 해방병단)의 일부로 형성되던 군악대 조직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기에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의 군악대 조직으로 발전하였고, 6·25 전쟁 발발 이후에 대한민국 공군과 해병대의 군악대가 또한 조직되었다. 이러한 군악대가 행사 지원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대원들에게 군사훈련뿐 아니라 음악훈련을 실시하였고, 특히 육군과 해군은 1949년부터 교육기관인 육군군악학교와 해군군악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였다.⁸⁾

육군군악학교는 1949년 5월에 개교하여 1955년 2월에 해체되었다고 『육군군악사』는 기록하고 있다. 서울 장충단에서 개교한 이 학교는 한편으로는 각 군악대에 소속한 대원들의 재교육과 새로이 창설되는 단위 군악대의 지휘관을 육성하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입학생을 모집하고 교육시켜 단위 군악대에서 필요로 하는 군악대원을 충원하였다. 첫 신입생 모집은 개교하던 해 가을에 이루어졌으며, 이듬 해 6월에 전쟁이 발발하자 개교 이후의 새로운 주둔지 남산을 떠나 후퇴를 하게 된다. 전세의 변화에 따라 부산으로 후퇴, 서울 남산으로 복귀, 다시 부산으로 후퇴를 했다가, 휴전 이후 1954년 5월 서울로 돌아왔다. 이후 유엔군 사령부가 전투 병력이 아닌 병력을 삭감하거나 전투 병력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국방부를 통해 실시함에 따라 결국 학교가 해체되었다고 한다.⁹⁾

8)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군악사』, 82-94; 남궁요열, “관악,” 369-373; 육군본부, 『육군군악사』, 69-70, 124-125.

6·25 전쟁기는 학교 주둔지 이전과 행정체제 변동 등을 가져온 혼란기였으나, 이 혼란의 와중에 육군군악학교의 교육활동이 오히려 확장되는 측면도 있었다. 전쟁수행을 위해 군악조직이 확대되면서 육군군악학교는 1951년 12월과 1952년 1월에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하였는데, 이때 통념적인 군악편성을 위한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 뿐 아니라 현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도 함께 신입생으로 선발하여 군 조직 내 음악교육의 범주를 확대하였다.¹⁰⁾ 교수진의 경우, 개교 초기에는 육군군악조직에 소속된 교관들이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의 참화를 피해 피난생활을 하던 음악인들을 특별 채용하여 교수진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진봉초 등 음악대학에서 가르치던 음악인들이 대학교육의 기반이 무너지고 임시체제로 유지되던 전시에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었고, 부산에 후퇴해 있던 육군군악학교가 이들을 문관(군인신분은 아니지만 자신의 전문성으로 군에 기여하는 전문인)으로, 민간인과 군인의 중간 위치)이라는 자격으로 군악학교에서 채용하여 가르치게 하였다.

해군군악학교의 경우, 육군군악학교가 개교하기 한 달 전인 1949년 4월에 개교하였으며, 십여 년간 존속하다가 1960년 3월에 해체되었다고 한다. 육군군악학교와 마찬가지로, 해군군악학교는 개교하던 해 가을에 입학생들의 교육을 시작하였고, 전쟁 발발 후 후퇴로 차질을 빚던 교육활동은 1951년에 재개되었으며 신입생 모집도 재개되었다고 한다.¹¹⁾

전쟁이 해군군악학교의 일시적 폐쇄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육군군악학교의 경우처럼, 해군군악학교에서도 전쟁기간 중에 교육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군악조직 내에서는 이교속 (후일 해군군악대장을 역

9) 육군본부, 『육군군악사』, 124-128.

10) 육군본부, 위의 책, 125-126.

11) 남궁요열, “관악,” 370; 대한민국 해군, 『반세기를 넘어서: 해군정훈50년사』, 412.

임하고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고 작곡가로도 활동함) 등이 교관으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국악 분야의 성경린과 이병성, 작곡분야의 김세형 등의 전문음악인들이 문관자격으로 교수진에 합류하였다고 한다.¹²⁾

육군군악학교와 해군군악학교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아우르는 집중적인 음악교육이 실시되는 한편으로 행사 참여 등 연주활동이 이루어졌고, 반면에 각 단위군악대에서는 군악병으로서의 연주활동에 주안점이 두어지는 한편으로 연주활동을 위한 음악훈련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1952년에 창설된 공군 최초의 군악대의 경우, 공군 내에 별도로 조직된 군악학교 없이 군악대 자체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였고, 군악대원들은 군악대 음악행사 참여를 목표로 한 효율성 중심의 음악 훈련을 받았다. 육군과 해군에 비해서 출발이 늦은 공군군악대는 관악연주경험이 있는 인력을 찾아 조직을 구성하여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따라서 행사를 위한 연습과 실제적인 실기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¹³⁾

하지만 개별군악대에서도 군악대장이 군악병들의 음악이론 습득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군악대 내의 이론교육이 이루어졌다. 한 예로, 국방부 정훈국 군악대(전쟁 이전에 조직된 수도경비사령부 군악대가 전쟁 중에 국방부 선전과 소속으로 소속을 변경한 후 이름을 바꾼 군악대로, 이후에 다시 육군군악학교 군악대로 이름을 바꿈)에서는 군악병들이 개인별 악기 연습과 합주 연습을 하는 것에 더하여 화성학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¹⁴⁾

다시 말해서, 개별 군악대는 군악대 공식 행사를 수행하는 업무에 병행하여 대원들의 음악훈련을 실시했고, 이는 기본적으로는 행사를 위한 연습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군악대의 임무수행을 위한 연주력을

12) 김정길, “나의 음악을 말한다,” 9; 남궁요열, “관악,” 370.

13)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군악사』, 91-98.

14) A와의 인터뷰, 2010년 10월.

충분히 갖추지 못한 대원들을 성원으로 포함한 군악대에서는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군악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악대장의 지휘방침에 따라 군악대 별 음악 훈련과 교육 내용에는 편차가 커서, 실기훈련에 국한된 경우부터 이론을 아우르는 음악교육에 이르기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3. 음악 전문인 교육을 지향한 군악학교 교육

각 군악대 내의 음악교육은 군악대별 특성에 의해 성격지워졌고 그 역사를 일반화하기 쉽지 않지만, 육군과 해군이 설치한 군악학교의 교육은 군악병 양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문음악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이 군에서 출판된 자료와 군악대에 종사했던 인물에 의한 기록에 남아있다. 『육군군악사』에 의하면, 육군군악학교는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사회 중견 음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¹⁵⁾ 해군군악학교의 교육목적 또한 군악병 양성으로 제한되지 않았다. 해군군악학교의 학제는 “음악대학 4년제를 보통과 2년, 고등과 6개월의 교과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조직되었고, 해군군악학교는 졸업생들에게 “중고교 교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국방부, 문교부와 교섭하였다”고 한다.¹⁶⁾

군악학교의 교육목적이 군악병 양성을 넘어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음악인을 양성하는 것을 지향하였다는 점은, 육군군악학교의 전공

15) 육군본부, 『육군군악사』, 124.

16) 남궁요열에 의하면 “보통과 2년, 고등과 6개월의 교과과정”이었다고 하고, 대한민국 해군의 『반세기를 넘어서: 해군정훈50년사』에 의하면 초기에는 2년 과정이었고, 1954년 8월 입교생부터 6개월 과정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남궁요열, “관악,” 370; 대한민국 해군, 『반세기를 넘어서: 해군정훈50년사』, 412.

설치와 그 운영 면에서도 나타난다. 전쟁기에 확대 발전된 육군군악학교에서는 관악과와 신호나팔과에 더하여 현악과를 설치하여 전공 교육을 제공했으며, 학생들은 전공뿐 아니라 부전공으로 실기 공부의 폭을 넓히도록 지도 받았다고 한다.¹⁷⁾ 현악은 육군군악대의 악기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현악전공 학생들을 교육하여 이들을 전쟁기간 중 새로이 창설된 육군교향악단의 연주활동에 참여시켰다. 이러한 육군군악학교에서의 교육과 육군교향악단에서의 연주경험은 일부 군악대원들과 군악학교 생도들이 군악학교와 육군교향악단이 해체된 이후 민간, 국립, 혹은 시립 교향악단의 관악 파트와 현악 파트의 주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적 배경이 되어 주었다.

군악학교의 교육이 음악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음악교육의 내용과 수준에 접근하고 있었음은 군악학교의 커리큘럼을 통해서도 그 면모가 드러난다. 예를 들면, 해군군악학교에서는 개인별 전공악기 실기교육에 더하여, 시창, 청음, 화성법, 음악사 등을 가르쳤는데,¹⁸⁾ 해군군악학교 교장이었던 남궁요열에 의하면 해군군악학교의 교과과정은 음악대학의 교과과정에 비견되는 것이었다고 한다.¹⁹⁾ 해군군악학교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전 군악대원에 의하면 해군군악학교에서는 실기와 음악이론 과목에 더해서 음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또한 제공하였다고 한다.

화성학 기초도 했던 것 같고요. 악전, 음악통론이라고 그러냐? 악전 해야 하고. 악보, 사보. 오전은 실과, 연주. 오후가 이론이었던가 뭐 그래요. 군악학교에서. 그리고 음대개념이 약간 있었어. 고등학교와 다르게. 그래서 서양음악을 하려면, 군악대라는 게 서양음악이니까,

17) 육군본부, 『육군군악사』, 126.

18) 김정길, “나의 음악을 말한다,” 9.

19) 남궁요열, “관악,” 370.

독일어도 해야 한다, 불어도 좀 알아야 한다, 영어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군악학교에는 독일어 강사하고 불어 강사하고, 영어.²⁰⁾

교수진의 구성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원들이 문관의 신분으로 군악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군악학교 교육과 대학교 음악교육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후일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로 재직했던 김정길도 해군군악학교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바 있는데, 그는 해군군악학교의 교수진에 대해 언급하면서, 피난 중이던 전문음악인들이 해군군악학교의 교수진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현역” 교관들과 함께 가르쳤다고 한다.²¹⁾

당시 대학관악교육의 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육군군악학교와 해군군악학교, 그리고 각 군악대를 통해 이루어진 음악교육과 훈련은 특히 그 규모 면에서 한국 관악 교육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군악사』에 의하면, 육군군악학교는 1949년에 개교하여 1956년도에 문을 닫을 때까지 2년제 본과에서 360명의 학생을 교육시키고, 6개월 과정 예과에서 수백 명의 학생을 교육시켰다고 한다.²²⁾ 해군군악대가 보관하고 있는 한 문서에 기재된 년도별 입학생과 졸업생 수를 합산해보면, 1949년 개교 이래 1956년까지 251명의 신입생이 해군군악학교에 입학했고, 이 중 155명이 1956년까지 졸업했다.²³⁾ 다시 말해서 두 개 군악학교를 통해 1949년에서 1956년에 이르기까지 수백여 명의 학생들이 2년 과정을 졸업했고 추가로 수백여 명의 학생들이 6개월 과정에서 공부를 했다. 이에 더해, 졸업생들은 군악대에 배치되어 대원으로서

20) B와의 인터뷰, 2010년 10월. 해군군악대가 보존하고 있는 해군군악학교 관련 문서에 의하면 1955년 시점에는 해군군악학교에서 외국어 과목으로 영어와 독어를 가르쳤다.

21) 김정길, “나의 음악을 말한다,” 9.

22) 육군본부, 『육군군악사』, 126.

23) 해군군악대 소장 자료에 의함. 1950년대 후반에도 졸업생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음악훈련을 받았다.

이러한 규모의 관악교육이 육군군악학교와 해군군악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일반 음악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고등음악교육의 규모는 아직 작았다. 육군과 해군의 군악학교가 문을 열고 신입생 교육을 시작했던 1949년 당시 국내에 존재했던 고등음악교육기관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예림원 음악학부와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 그리고 숙명여자대학 문학부 음악학과가 있었다.²⁴⁾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학부와 숙명여자대학 음악학과는 1949년 당시 아직 관악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²⁵⁾ 실제로는 당시 서울대학교에서만 관악 부문의 고등교육이 이루어진 셈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 관악교육을 받고 졸업한 인원은 1950년대 전반을 거치는 동안에도 그 수가 적었다.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의 경우, 1948년에 배출된 음악전공의 전문부 첫 졸업생이 모두 38명에 지나지 않았고 다음해와 그 이듬해의 졸업생이 각각 61명과 73명이었으며, 6·25 전쟁 발발 후 서울대 음대 학부의 첫 졸업생이 13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기록을 고려하면,²⁶⁾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한 졸업생 중에 특히 관악을 전공한 학생의 수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전쟁 중 전시연합대학에 음악전공으로 등록한 학생은 137명이었고, 1951년 신입생은 48명이었다고 하는데,²⁷⁾ 이들 중 상당수가 1950년대 전반기에 음악전공으로 고등교육을 마쳤겠으나, 관악전공 졸업생은

24) 숙명여자대학교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숙명 100년: 1906~2006 I』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2008), 317;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양악100년』, 352-357; 조상현·김성남, “대학의 음악교육,” 576-577.

25) 숙명여자대학교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위의 책, 322-323;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95-123.

26) 민은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7), 2-9.

27) 민은기, 위의 책, 8.

그 중의 일부일 뿐이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1960년이 되어서야 관악부전공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1955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1950년대 전반기에 관악을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가르쳤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²⁸⁾ 1950년대 전반기에 새로 설립된 여타의 대학교에서도 아직 관악전공생을 본격적으로 배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효성여자대학교 음악과와 경희대학교의 전신인 신홍대학 음악과가 문을 열었으나, 이들 음악과가 출발한 시점을 고려하면 1950년대 전반기에는 아직 이들 고등음악교육기관을 통한 관악전공생의 교육과 배출이 극히 제한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연세대학교는 종교음악과를 1955년에 설치하였는데, 그 해 1학기의 개설과목 기록에 의하면 관악교육은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³⁰⁾

음악전공을 설치한 고등교육기관의 이러한 상황에 비교할 때, 육군군악학교와 해군군악학교에서 1956년까지 이미 수백여 명의 생도들이 관악실기와 이론 교육 2년 과정을, 그리고 또 다른 수백여 명의 생도들이 6개월 과정을 졸업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음악교육사에서, 특히 관악교육사에서 이들 군악학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드러내 준다. 게다가, 육군과 해군의 군악학교에서 관악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이 군악대 소속으로 다시 수년간 연주훈련을 쌓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악조직 내에서의 관악교육은 군악학교에서 군악대로 연결되는, 실로 방대한 체제를 이루었다.

28) 숙명여자대학교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숙명 100년: 1906-2006 I』, 327-364;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142-144.

29)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양악100년』, 357; 조상현·김성남, “대학의 음악교육,” 577.

30) 음악대학 50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6-31. 연희전문학교 시절의 음악부는 음악전공이 아니고 문과나 상과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과외활동 단체였다. 이에는 관현악단, 합창단, 취주악단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당시 군악학교에서의 관악교육을 현재의 음악대학의 관악교육과 비교하면 이론과 실기교육의 내용과 체계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이것은 비단 군악학교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형성기에 있던 관악 고등교육의 일반적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육군군악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전 군악대원 중의 한 명은 군악학교 수업내용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음을 인터뷰에서 표현했는데, 그는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한 대학 음악교육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유사한 불만족을 표현한 바 있다.³¹⁾ 다른 예로, 육군군악학교의 행정에 관계했던 전 군악장교의 회고에 의하면 육군군악학교가 계획했던 커리큘럼이 전쟁으로 인해 구상했던 대로 실현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³²⁾ 당시 전쟁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음악대학들도 기반을 잃고 임시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또한 전쟁으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기반파괴와 혼란상의 반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악 고등교육의 형성기에, 그리고 전쟁의 혼란기에, 육군과 해군의 군악학교는 그 교육체계와 내용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악교육의 저변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해군군악학교 재학시절을 회고하면서 작곡가 김정길은 “나는 처음으로 음악교육을 그곳에서 받게 된 셈이다”라고 썼으며, 이러한 해군군악학교에 대한 김정길의 대체적인 생각은 “전쟁 중 이것이 음악학교의 기능을 대신했다고 본다”는 것이다.³³⁾ 해군군악학교에 대한 김정길의 이러한 평가는 이 글의 앞에서 인용했던 남궁요열의 해군군악학교에 대한 언급, 즉 해군군악학교의 교육과정이 “음악대학 4년제를 보통과 2년, 고등과 6개월의 교과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는 언급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31) C와의 인터뷰, 2007년 5월, 2007년 6월.

32) D와의 인터뷰, 2010년 6월.

33) 김정길, “나의 음악을 말한다,” 9.

4. 국가, 전쟁, 군, 그리고 관악교육의 성장과 그 외연의 확장

이상에서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군악조직에서 이루어진 관악교육을 당시 음악교육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설명하면서, 육군과 해군의 군악학교가 그 교육목적, 커리큘럼, 교수진의 측면에서 당시 음악대학에 비견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규모면에서는 당시 음악대학에서의 관악교육을 능가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러한 군악조직의 관악교육을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살피면서, 전쟁기 국가의 공권력, 군의 위계체제와 규율, 군악병들의 부대 대 공동생활, 군악대 레퍼토리 확장, 그리고 군음악의 원리와 6·25 전쟁기에 전개된 군음악의 특성 등이 20세기 중반 군악조직 내 관악교육의 성장과 그 외연의 확대에 영향을 끼쳤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를 20세기 중반에 군악학교 교관, 행정장교, 생도, 군악대원으로 군음악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하고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민동원체제와 국가적 지원을 통한 관악교육 저변의 확대

군악학교 생도나 군악대원이 군에 입대한 과정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6·25 전쟁 전과 후의 입대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6·25 전쟁 전에 군악대에 입대한 그룹은 대부분 전문적인 혹은 초보적인 음악능력을 지닌 상태에서 군악대를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발휘하고 키워나갈 장으로 간주하고 직업으로서 군악인의 길을 선택하였다. 전쟁 발발 후에는 상황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한편으로는 학교밴드부원들이 군악병을 모병 중이던 군악조직의 설득으로 군악대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³⁴⁾ 이러한 경우, 국가의 요구가 애국심에의 호소라는 방식으로 작

34) 육군본부, 『육군군악사』, 139.

동하여 설득의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밴드 활동 등 음악연주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 선택으로 군악학교에 입학하거나 군악대에 입대하였다. 전쟁 중에 국가가 전쟁 수행을 위하여 청년층의 동원령을 내리면서, 음악연주 경험이 있거나 악기를 소유한 젊은이들이 전투병 신분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신분으로 간주된 군악병으로 참전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전쟁 기간 중에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청년들을 군악조직으로 모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전쟁기에 군 조직의 팽창에 따라 이를 지원할 군악대의 증가가 요구되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기관의 관악교육을 통해 배출된 관악전문연주자의 수가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는 상태였고, 따라서 증가하는 군악대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군 조직이 군악대원으로 양성할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공권력을 기반으로 군악병 모집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군 조직은 학교밴드활동을 통해 관악연주에 입문한 다수의 청년들을 군악학교와 군악대에 흡수하고 교육시켜서 필요한 군악연주인을 길러냈던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속에서, 때로는 관악연주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예를 들면 성악을 공부한 학생들이나 관악기 이외의 악기라도 취미로 연주해 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군악조직으로 흡수되어 관악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특히 소규모 군악대의 경우에) “경험이 없는 대원들을 기초부터” 가르쳐 군악대원으로 성장시키기도 하였다고 한다.³⁵⁾

전쟁기간에 군악대에 소속하고 있던 대원들은 휴전 이후에도 이삼년 간 군악조직 내에서 훈련과 연주활동을 지속해야만 했다. 이는 군 조직이 군악대원들을 특수기술집단으로 간주하여 휴전 이후에도 이들

35) 육군본부, 『육군군악사』, 107.

의 제대를 수년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쟁전이나 전쟁 중에 군악학교를 거쳐서 혹은 직접 군악대에 입대해서 군악대 소속으로 활동한 군악대원들은 그들이 군악대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짧게는 삼사년 길게는 오륙년 이상 군에 머물면서 관악교육을 받고 연습과 연주활동을 하게 되었다.

군악대출신들이 삼년내지 사년에서 제대를 하잖아요. 군악대는 고등학교 때 밴드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였고, 그러니까 제대할 □□에서 악기를 오륙년 이상 칠팔 년씩 만졌다. 그럼 그 실력은 조금만 훈련을 받으면 그냥 직업연주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가 솔찬히, 육해공군 군악대 출신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³⁶⁾

전쟁 상황에서 국가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 군악병으로서 다년간 군복무를 해야 했던 상황이 군악조직에 있었던 청년들의 자유로운 삶의 세계를 제한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권력의 개입으로 군악학교에 입교하거나 군악대에 입대한 청년들이 군악조직 내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전쟁의 참화를 비껴간 것도 사실이다.

굉장히 좋은 사춘기에 보호를 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음악환경 안에서. 딴 거 복잡한 거 인생에 뭐 그런 걸 배운 게 아니고, 돈벌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학자적으로 권위 있는 지식층의 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하여튼 그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결국은 운명이, 밴드부에 갔고, (...) 한국동란이 열렸고,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하는데 밴드부에 있었으니까 군악대를 갔고, 진해 바닷가의 청정지역에서 군악대라고 연주연습 하면서 음악공부 했고, 학교에서.³⁷⁾

36) B와의 인터뷰, 2010년 10월. 인용문에 나타나는 부호 □는 인터뷰 녹음내용에서 식별되지 않는 음절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6·25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비상상태에서 국가의 공권력과 군의 조직력을 동원하여 음악 인력을 확보하고 군악조직 내에서 보호하면서 수년 간 교육시킴으로써 군악조직은 관악연주자의 저변을 확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관악교육이 아직 형성기에 있을 때, 학교밴드부에서 관악기를 연주했던 청년들이 군조직 내에서 다시 여러 해 동안 관악훈련을 받았고, 군 조직을 통해 관악에 새로이 입문하는 청년들도 생겨났던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이 군악병의 모집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음악인들을 문관이란 신분으로 군 조직에 통합하는 데까지 미쳤고, 군악학교와 군악대에서 음악을 가르치게 된 문관들은 전쟁기에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전문음악인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했다. 이렇게 해서, 전쟁기를 거치는 동안 음악초보자로부터 아마추어 음악인, 음악전공생, 중견음악인, 유명음악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음악 인력이 군 조직에 흡수되어 음악교육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2) 규율과 연습

위계질서가 견고하며 규율이 엄격한 군 조직 내에서의 음악교육은 군악학교 생도들과 군악대원들이 강도 높은 음악훈련을 받으면서 연주력을 향상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면, 전쟁기 군악학교 교관으로 근무하였던 E는 군악학교에서의 음악교육과 일반 음악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군악학교라는 것은 군사 면이 먼저고 그 다음에가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규율이 심하지요, 아주. 아침 기상 문제라든가, 밥 먹는 거, 행동□□□ 규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군사가 앞

37) B와의 인터뷰, 2010년 10월.

고 그 다음에가 음악이다. 그러나 일반 음악대학에서는 음악이 먼저고 그 다음에가 규율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학교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결석하면 그만큼 점수 깎으면 그만이고. 군대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지요. 그런 차이가 있지요.³⁸⁾

군악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군악대에서도 엄격한 규율과 명령체계 속에서 강도 높은 실기 연습이 이루어졌다. 당시 군악대원이었던 A에 의하면,

아침 딱 먹으면 딱 파트별로 딱 앉아 연습 딱 시작하라고 하면 딱 연습하고, 또 한 한 시간 하다가 몇 분 쉬라고 하면 쉬고, 또 하고, 점심 먹고 오후는 합주하고 또 쉬고. 그리고도 또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남한테 지기 싫어서 강당에 가서 연습을 더 하고 그래서, 그때 트럼펫 부는데 이빨이 다 흔들거렸어요. 너무 많이 불면 이빨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³⁹⁾

이와 같이 군악학교 생도들이나 군악대원들은 나태함이나 해이함이 허락되지 않는 환경에서 연습에 매진했다. 군악학교 생도들과 군악대원들의 생활은 군사훈련, 개인연습, 파트별 연습과 합주, 그리고 공식 연주(군과 정부의 행사 지원연주, 그리고 군과 민을 위한 음악공연)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의 군악대 생활을 회고하면서 군악대원들은 인터뷰에서 그들의 일상이 끊임없는 연습의 지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식의 언급을 자주 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군악대원들은 당시 군사적 명령체계와 규율에 얽매인 생활이 개인의 음악적 관심이나 창의성의 발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함축적으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엄격한 군조직의 특성에 기반 하여 연습량의 축적이 지속되

38) E와의 인터뷰, 2008년 12월.

39) A와의 인터뷰, 2010년 10월.

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연주테크닉의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그들은 더욱 명확하게 언급했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군악대원들은 강도 높은 연습을 통해 그들이 얻은 음악적 성취를 자랑스럽게 회상하는 것으로 보였다.

(3) 음악공동체에 일상화된 음악경험

전쟁기간 동안 전세의 진전과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피난민으로서 혹은 군복무를 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이동을 하였다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데, 군악대의 형성과 팽창과정에도 이러한 지역간 인구이동이 개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관악연주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 군악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주력을 가진 성원들이 군악대 부대에 집결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전쟁 중이던 1952년에 창설된 공군군악대는 1951년 가을부터 대원 모집을 시작했는데, 서울, 인천, 경북지역 출신인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대구에서 이 공군군악대가 창설되었다고 한다.⁴⁰⁾

전국에서 모여든 다양한 음악적 재능과 다양한 음악적 숙련도를 가진 젊은이들이 군악대 주둔지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음악공동체를 이루었고, 이러한 음악공동체 내에서 군악대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음악을 배워 나갔다. 국방부 정훈국 군악대에서는 화성학 지식을 가진 군악대원이 군악대의 다른 대원들에게 화성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때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애들이 거기 많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론은 못 배웠으니까 그 이론을 배워야 된다고 해서. 군악대장이 특별히 그때 이제, 우리 대원 가운데 화성학을 잘 하는 사람이 하

40)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군악사』, 85.

나 있었어요. 개가 가르치고. (...) 주로 실기를 하는데 이론도 약간씩 좀 배우고. 합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지요. 합주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론을 많이 배우고 그러지요.⁴¹⁾

당시 이 군악대 내의 화성학 공부는 화성의 진행을 군악대원들의 관악기 음향으로 들으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군악대원들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그들 군악대에게 고유한 방식의 화성학 수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음악공동체 내에서 군악대원들은 다양한 악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다양한 편성의 앙상블과 합주 경험을 수시로 할 수 있었다. 일반 음악교육기관에서의 음악교육은 개인 교습과 개인 연습이 주를 이루고, 학생들이 주로 개인연주자로서의 음악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군악학교와 군악대에서는 개인적 연주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에 못지않게 집단적 훈련과 합주연습이 중요한 축을 이룬다. 따라서 군악대원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합주연습을 하면서 관악법을 체득했는데, 부대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을 늘 함께하는 군악대원들은 일정으로 정해진 합주 연습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동료들과 다양한 앙상블을 구성하여 함께 연주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군악조직 내에 집결한 청년들은 군사적 규율과 통제가 틀 지운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 틀 안에서 그들은 숙식을 함께하는 공동생활체를 구성하였고, 일상 속에서 연습과 놀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음향을 경험하고 학습하였다.

(4) 연주, 그리고 편곡과 작곡

한국 관악계가 아직 형성기에 있던 당시 군악대를 위한 연주곡의 레퍼

41) A와의 인터뷰, 2010년 10월.

토리가 아직 제한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군악대는 다양한 경로로 악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군악대 내부에서 레퍼토리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었다. 전 군악대원 C에 의하면 그가 속한 군악대의 대장이 그에게 행진곡을 작곡해 볼 것을 권유하였고, 그렇게 해서 그가 작곡한 곡은 그의 군악대의 음악회에서 발표되었다고 한다.⁴²⁾

때로는 상관의 권고나 명령이 아니더라도 군악대원들은 자발적인 음악적 관심으로 작곡을 하기도 하였다. 전 군악대원 A는 행진곡 연주 경험을 통해 행진곡의 형식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스스로 행진곡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걸 쓰게 된 거는 군악대 (...) 에서 화성학 공부하고. 다른 거는 이제 음악이론을 안 배워도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 그걸 분석해보고. 무슨 형식인지, 이것도 형식이름은 모르지만, 아, 이렇게 쓴다. 분석해보면 행진곡 조직이, 곡 구성이, 이렇게 된다. ⁴³⁾

상당수의 군악대원들이 화성법과 관악법 등을 공부한 상태에서 수년간 실기 연습과 합주 경험을 쌓으면서, 재능 있는 군악대원들은 악곡의 구성과 조직, 그리고 그 음악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해는 그들 중 일부의 대원들이 편곡과 작곡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는 바탕을 이루었다. 실제로 육군과 해군의 몇 개 부대의 악보실에서 1950년대에 군악대 성원들에 의하여 편곡되거나 작곡된 곡의 필사본 악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군악대 성원들이 작곡한 음악의 전형적 유형은 행진곡이었고, 군악대원들이 작곡한 행진곡이 실제로 연주되는 경우에는,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작곡한 성원 자신이 속한 군악대의 국한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연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

42) C와의 인터뷰, 2007년 5월, 2007년 7월, 2007년 12월.

43) A와의 인터뷰, 2010년 10월.

지만 행진곡 작곡은 그들이 제대한 이후 혹은 사임이나 퇴직을 한 이후 전문음악인으로서 작곡활동을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예를 들면, 행진곡에 관련된 위의 인터뷰를 제공한 두 분은 서로 다른 음악분야 (예술음악/대중음악)에서 작곡가로 활동하였지만, 두 분 모두에게 군악대에서의 행진곡 작곡이 공적 영역에서 그들의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던 시초인 것으로 안다. 사병 군악대원들뿐만 아니라 군악대의 지휘관이나 군악학교의 교관들 또한 편곡이나 행진곡 작곡을 했으며, 그들 중 몇몇은 한국의 대표적인 행진곡 작곡가로 기억되고 있다. 예를 들면 육군군악대에서 군악대장을 지냈던 김희조, 해군군악학교에서 교관으로 활동하고 해군군악대의 군악대장을 역임한 이교숙 등이 그들이다.⁴⁴⁾ 육군군악대에 소속했던 군악대원의 회상에 의하면 김희조는 민요곡을 그의 군악대를 위한 관악곡으로 편곡하기도 했다고 한다.⁴⁵⁾

정리하면, 군악대 레퍼토리 확충의 필요성이 군악대원이나 군악장교들에게 편곡과 작곡의 동기로 작용하였고, 군악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과 음악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 그들의 음악적 소양은 편곡과 작곡을 시도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군악조직 내에서의 음악교육은 작곡과 편곡으로까지 그 교육효과의 외연을 넓혔다.

(5) 군사적 목적, 그리고 다양한 음악

군에서는 다양한 군사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음악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사용하였다. 그 중 가장 전형적인 군악 레퍼토리는

44) 김희조는 <충성을 다하라> 등 다수의 행진곡을, 이교숙은 <해군행진곡> 등 다수의 행진곡을 작곡하였다.

45) C와의 인터뷰(2007년 6월)에 의하면, 그의 군악대장 김희조가 <아리랑>, <도라지>, <천안삼거리>, <경복궁 타령> 등의 민요를 관악곡으로 편곡하였다고 한다. 한 군악대의 악보실에서 <천안삼거리>의 관악편곡 악보를 발견하였는데, 1952년에 이 악보를 사보한 군악대원은 편곡자란에 김희[희]조라고 적었다.

행진곡과 군가였다. 이러한 유형의 곡들은 군악대들이 주로 군이나 정부의 행사를 지원할 때 연주하였다. 그들은 또한 군인과 시민을 위한 음악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연주 무대에서는 가곡, 서곡, 기타 서양 예술음악의 관악편곡 작품 등을 행진곡과 군가에 더하여 연주하였다.⁴⁶⁾ 어떤 군악대들은 이보다 더욱 다양한 유형의 곡들을 연주하였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민요가 그 일부였고, 대중가요의 관악편곡이 또 다른 일부였다.⁴⁷⁾ 1990년대에 방송 프로그램 열린음악회가 클래식 음악으로부터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음악을 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포맷으로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장수프로그램이 되었는데,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한 무대에 올려 병사와 시민을 위한 공연을 하였던 대한민국 군악대의 공연무대는 9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 열린음악회 포맷의 전형을 20세기 중반에 이미 보여 주고 있었다.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다양한 음악의 종류를 넘나들며 연주하였던 군악대 활동을 통하여 군악대원들은 다양한 레퍼토리와 다양한 음악 문법을 접하는 기회를 얻었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음악적 관심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다.

전쟁기에 문관 혹은 기타의 자격으로 군부대와 연계를 맺고 음악활동을 하였던 다양한 분야의 음악전문인들과의 상호작용 또한 군악대 성

46) 한 예로, 육군본부군악대의 전신인 조선경비대 제1연대 군악대가 그들의 제1회 군악연주회에서 행진곡 세 곡에 더하여 <시인과 농부>, <경기병>, <천국과 지옥> 등의 서곡과 <다뉴브강의 물결> 등을 연주했다는 기록이 육군본부가 출판한 『육군군악사』(86쪽)에 나타난다.

47) 다양한 음악연주의 예가 공군군악대의 음악회에 대한 기록에 보인다. 공군군악대 제1회 춘계군악연주회 프로그램에 의하면, 공군군악대는 이 음악회에서 군가 <조종사의 노래> 외에 Beethoven의 <Egmont 서곡>, Dvořák의 <From the New World>의 일부, J. Strauss의 왈츠 <Voices of Spring>, G. Rossini의 서곡 <William Tell> 등을 연주하였다고 한다.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이 출판한 『공군군악사』(85쪽)에 의하면, 이 군악대는 후일 1956년에 개최한 음악회에서 서양예술음악뿐만 아니라 미국 대중음악을 또한 그들의 무대에 올렸다고 한다.

원들의 음악적 관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이미 소개한 것처럼 작곡가 김정길은 그가 해군군악학교에서 만난 교수단의 일원으로 국악계의 성경린과 작곡가 김세형을 언급하였는데, 그는 여기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화성법과 작곡법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한다. 군악대에서 이미 김세형에게 배우기 시작한 김정길은 제대 이후 나중에 김세형의 제자로서 작곡 공부를 계속한다.⁴⁸⁾ 이와 같이, 군악대를 통해 이루어진 다른 음악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만남은 군악대원들이 자신의 음악적 관심을 확인하고 장르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군악대를 통한 음악적 관심의 확대는 전쟁기간 동안 한·미간의 군사적 공조체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김정길은 그의 저술에서 해군군악학교 교관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재즈 피아노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고 하는데,⁴⁹⁾ 이는 학교 주변에 주둔했던 미군들과의 음악적 교류의 과정에 연관되어 있었다. 다른 예로, 대중음악계에서 작곡가로서 그리고 방송국의 전속악단장으로서 다년 간 활동한 C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육군군악조직에 소속되어 있던 시절 그의 군악대와 음악적 교류를 나누었던 미군 군악대의 대원들과의 만남이 그에게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는 미군 군악대원들과의 음악적 만남을 통하여 스윙, 재즈 등의 레퍼토리와 연주기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러한 음악적 경험이 군악대 제대 이후 그의 음악활동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⁵⁰⁾

다시 말해서, 다양한 군사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음악을 활용하는 군악의 원리, 전시에 국가가 군을 중심으로 결집시킨 다양한 분야의 음악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한미 군사 협력을 통해

48) 김정길, “나의 음악을 말한다,” 9.

49) 김정길, 위의 글, 10.

50) C와의 인터뷰, 2007년 5월.

유입된 미국 대중음악의 경험 등은, 20세기 중반 군악조직에 소속했던 음악인들의 음악적 관심이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군악대원들과 군악장교들의 다수는 제대나 전역 후에 서양예술 음악, 국악, 대중음악의 연주, 작곡,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였다.

5. 요약과 맺음말

이상에서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전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군악의 역사를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해석해 보았다. 관악교육이 중·고등학교의 밴드부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대학교에서의 관악전공 교육이 아직 형성초기 단계에 있던 그 시기에, 육군과 해군의 군악학교는 당시 대학교에 설치된 관악전공 교육이 수용하던 학생수를 월등하게 뛰어 넘는 수의 학생을 수용하여 이론을 포함한 전공교육을 제공하였고, 각 군의 군악대는 군악학교 졸업생들을 대원으로 맞아 음악훈련을 지속하였다. 두 군악학교의 교육목적, 교과과정, 교수진은 당시 대학교 관악전공 교육의 그것과 유사했으며, 극단적으로 각박한 평가자의 척도를 적용하더라도 군악학교에서 제공한 교육은 중·고등학교 밴드부의 활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교육목적과 체계와 수준을 확보하였다. 또한, 군악학교와 군악대를 아울러서 이루어진 관악교육과 훈련은 다른 어떤 교육조직도 따를 수 없는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군악병의 수가 증가하였고, 군악대를 통한 관악교육의 규모도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군 조직을 통하여 이러한 규모와 내용을 갖추고 이루어진 관악교육은, 국가의 공권력과 전쟁의 비상사태, 군조직의 강력한 규율, 군악대원들의 부대 내 공동 거주, 레퍼토리 구축의 필요성, 다양한 종류의 음악

을 기능 중심으로 활용하는 군음악의 원리들의 결합에 바탕을 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관악초보자로부터 다양한 음악분야의 전문가가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증대된 공권력에 의해 동원되고 보호받으며 군부대에 집결하고 그곳에서 다년 간 교육과 학습활동을 지속하였다. 다년에 걸친 군복무 기간 동안 군악대원들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집중적인 음악 훈련을 받는 동시에 주야로 대원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부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음악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다. 덧붙여서, 다년간에 걸친 관악 합주 경험과 음악의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부 군악대원들은 군악대가 필요로 하는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관악 편곡이나 작곡까지 음악활동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군악대원들은 군악조직을 통해 다양한 음악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 음악적 관심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얻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관악교육의 중심을 이루던 군악조직에서의 관악교육은, 195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그 기능을 축소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군군악학교가 1955년에 문을 닫은 것이 기능 축소의 한 과정이었고, 해군군악학교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을 닫았다. 근본적으로는 휴전체제가 정착되면서 나타난 정치 군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군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악교육의 상황에도 변화가 생겼다. 특수기술집단으로 분류되어 휴전협정 이후에도 제대하지 못하던 군악병들이 1950년대 중반에 제대하기 시작하였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 직업의 안정된 기반을 잃고 문관신분으로 군악학교와 군악대에 협조하던 음악전문인들도 점차로 군부대를 떠나 자신의 본래 신분으로 복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교 음악교육이 점진적으로 내실을 쌓아가게 되었으며, 음악과를 설치하는 대학교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악교육이 대학교육을 통해 정착해 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군악조직이 더 이상 관악교육의 중심에 있지 않고, 음악대학이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관악

교육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 지금도 군악대에서 대원들의 훈련은 계속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군악대원들의 교육활동이 지속되고 있지만,⁵¹⁾ 군악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관악교육이 전체 음악교육과의 연관성 속에서 갖는 의미는 20세기 중반의 그것과는 다르게 변화했다. 1950년대 초반 군악조직이 관악교육에서 차지했던 커다란 비중과 그것이 맡았던 주된 역할에 대한 기억은 이제 역사의 먼 시간 속으로,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군악종사자들의 기억 속으로 묻혀져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1950년대 군악조직 속의 교육활동의 세부사항을 기술하고 해석한 이 글은, 군악사를 음악교육의 시각에서 새롭게 서술하는 의의를 갖는 동시에, 대학관악교육 형성기의 관악교육계를 군사의 범주를 포괄하여 확장된 범위에서 설명하고 간과되었던 관악교육의 주요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설명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군악조직에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음악 인력의 일부가 195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군악대를 제대하고 학교밴드의 지도자, 중·고등학교의 음악교사, 대학교의 교원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이 각자의 교육현장에서 한 활동과 이들이 이룬 성과를 밝히는 작업은 군악학교에서의 교육이 더 넓은 교육구조 속에서 어떻게 확대 재생산 되었는지를 드러내는 후속 연구로 학문적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51) 권종구, “군악 연주시설 및 교구보유 실태조사와 그 개선방법에 관한 연구: 육군 군악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김재학, “군악대의 효율적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사단급 군악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송태영, “대한민국 군악교육대의 운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군군악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군악사』.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08.
- 권중구. “군악 연주시설 및 교구보유 실태조사와 그 개선방법에 관한 연구: 육군 군악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김재학. “군악대의 효율적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사단급 군악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김정길. “나의 음악을 말한다.” 『낭만음악』 9 (1990), 7-56.
- 김호석. “국방부 국악대의 창설과 실태.” 『한국음악사학보』 29 (2002), 217-246.
- 남궁요열. 『개화기 한국음악: 프란츠 에케르트를 중심으로』. 세광음악출판사, 1987.
- 남궁요열. “관악.” 『한국음악총람: 총론편』 (한국음악협회 편집), 한국음악협회, 1991, 362-395.
- 노동은. “한국관악의 역사: 근대관악사를 중심으로.” 『예술문화』 4 (2001), 27-98.
- 대한민국 예술원 편집. 『한국예술총람: 개관편』. 예술원 사무국, 1964.
- 대한민국 해군. 『반세기를 넘어서: 해군정훈50년사』.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1999.
- 민은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97.
- 박태준. “현대의 양악.” 『한국예술총람: 개관편』 (대한민국 예술원 편집), 예술원 사무국, 1964, 468-474.
- 송방송. “대한제국 시절 군악대의 공연양상: 최초 양악대의 공연종목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35 (2005), 99-115.
- 송태영. “대한민국 군악교육대의 운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군군악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

- 대학원, 2010.
- 숙명여자대학교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숙명 100년: 1906~2006 I』.
창학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2008.
- 육군본부. 『육군군악사』. 육군본부, 1980.
- 음악대학 50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50년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양악100년』. 현암사, 2001.
- 이숙희. “대한제국 악제의 성립 배경과 성격.” 『서울학 연구』 35 (2009), 59-110.
- 이정희. “대한제국기 군악대 고찰.” 『한국음악연구』 44 (2008), 165-194.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 장사훈. 『여명의 동서음악』. 보진재, 1974.
- 조상현·김성남. “대학의 음악교육” 『한국음악총람: 총론편』 (한국음악협회 편집), 한국음악협회, 1991, 576-577,
- 한국음악협회 편집. 『한국음악총람: 총론편』. 한국음악협회, 1991.
- 황인근. “국군취타대의 기능과 활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1.
- Heejin Kim. “Military Band Musicians on the Border: Crossing over Musical Genres in the Transnational Space of the Korean War.” Ph.D. dis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12.

기타 참고자료

- 공군군악대. “제1회 춘계군악연주회” 프로그램.
군악대 소장 군악학교 자료와 악보.

Abstract

**The Educational Function
of Mid-Twentieth Century ROK Military Music
Organizations**

Heejin Kim

This article discusses mid-twentieth century ROK (the Republic of Korea) military band organizations, exploring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 from educational perspectives rather than focusing on their military activities. These organizations functioned as the most expansive source of wind instrument performance education in the ROK at this time. In order to explain this educational role, this article details the musical training provided within each military band unit as well as the educational goals, scope and curriculum of the ROK Army Music School and the ROK Navy Music School in comparison with the wind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programs at the contemporar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allowed its music organizations to successfully act as an educational system: 1) the power of the state during the emergency of the Korean War allowed for the rapid growth of wind instrumental music education as part of its military music system; 2) tight military regulations led to intensive musical training; 3) musical communities easily developed within military camps as band members lived close together, thus allowing for extended teaching/learning experiences during free time as well as during on-duty hours; 4) the military demand for an ever-expanding repertory provided military musicians with strong motivation for the arrangement and composition of wind instrumental music as well as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performance skills; and 5) the ROK

military's employment of diverse types of music, its collaboration with musicians in various fields of music, and its military collaboration with the US provided opportunities for the study of a broad range of music in the military band organizations. By focusing on the ROK military music organizations' educational role, this article provides new insights into the military music organizations. Also, by detailing these often understated educational activities within the mid-twentieth-century military organizations, this article add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wind instrumental music education in Korea.

Keywords: military music, military bands, military music schools, music education, the Korean War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3년 4월 25일	2013년 5월4일~23일	2013년 6월 1일